

# 2022. 3월 3주 언론보도 스크랩

## [정책보도] 강원소방 전국에서 달려온 동료들에 감사



동해안 산불 잡아라...전국에서 모인 소방차  
강원도소방본부가 지난 4일~13일 동해안 산불 진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동료 소방관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16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전국소방동원령이 발령되자 전국 시도에서 소방관 300여 명과 소방차 109대가 산불 현장으로 달려왔다.

전북 전주에서 동해안까지 무려 400km를 달려와 곧장 산불 현장에서 진화와 민가 방어를 위해 치열한 사투를 벌인 소방관들도 있었다.

강원소방은 총 인력 5천600여 명과 소방차 1천여 대를 동원해 진화 기간 내내 사투를 벌였다.

대구에서 온 119중앙구조본부 대원들은 산불이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주변으로 번지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2대를 배치해 LNG 기지를 지켰고, 울산 북부소방서 대원들은 해군 1함대와 힘을 합쳐 탄약고를 방어했다.

새내기 소방관들도 베테랑 소방관과 함께 곳곳에서 활약했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전국 각지에서 출동해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 감사하다"며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보도] 강원소방, '동해안 산불 합동조사본부' 운영

KBS 춘천

2022년 03월 14일  
(강원)

### 강원소방, '동해안 산불 합동조사본부' 운영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동해안 산불의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작업이 실시됩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이달(3월) 19일까지 '동해안 산불피해 합동조사본부'를 운영합니다.

조사본부엔 강원소방 소속 광역화재조사팀원 13명이 투입됩니다.

이들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과 삼척, 동해의 주택과 건물 390여 곳의 정확한 피해 면적과 피해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휴연 dakgalbi@kbs.co.kr

## 올해 지역 소방공무원 경쟁률 '13.2대1'



올해 지역 소방공무원 경쟁률 '13.2대1' 사진=연합뉴스

올해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경쟁률이 13.2대1로 집계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강원도는 114명(공채 75명, 경채 39명)의 신규소방관을 채용하는 가운데 1,515명이 지원했다.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75명 모집에 1,217명이 지원해 16.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남성과 여성 경쟁률은 각각 15.5대1, 25.8대1을 기록했다.

경력경쟁채용의 경쟁률은 7.6대1(39명 모집, 298명 지원)이었다. 경력채용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7.8대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올해 신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다음 달 9일 시행된다.

합격자 발표는 5월9일이며, 체력시험은 5월10일에서 6월10일 사이, 인·적성검사와 면접시험은 6월15일에서 7월15일 사이 시·도 소방본부별로 진행한다.

권순찬(sckwon@kwnews.co.kr)

## [정책보도] 봄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 영상회의 개최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17일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소방관서장 영상회의를 열었다.

도내 18개 시·군 소방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등 대형화재 예방활동·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건설현장 및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산불 및 코로나19 대응 노고 격려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상기 도소방본부장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과 재난발생시 초기에 가용 소방력을 다해 총력 대응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책보도] 봄철 화재예방 대책 추진 영상회의 개최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3월 19일은 창설 128년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이다. 의용소방대원은 도내 곳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써의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7천여명 의용소방대의 첫돌이지만 오미크론과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하여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군에 설치된 소방봉사 단체이며, 지역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가입하게 된다.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 등 특별한 경우에만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는 과거 1889년 경성에서 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조'를 구성한 것이 그 시초였다.

지역공동체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시작으로 소방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 온 의용소방대는 광복이후 1958년 소방법에 의거 정식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된 이후 계속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였다.

강원도내에서는 292개대에 7,500여명의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 164개대 4,381명, 여성 127개대 3,054명 등으로 구성되어 강원도의 안전지킴이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금번 동해안 산불현장에서도 강릉·동해·삼척 등 의용소방대원 2,800여명이 동해안 산불대응을 위하여 산불 진압 및 잔화정리, 급수지원, 급식자원봉사 등 지역 안전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했다.

또한 영동지역 산불예방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설치 지원단 23개팀을 구성하여 산림인접마을 화목보일러 사용주택 524가구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사업을 3월중 조기에 추진 완료 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홍천의용소방대에서는 홍천읍 오안경로당 일원에서 봄철 불조심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외계층 독거어르신 가구에 연탄 500장의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이에 앞서 21일 원주남성의용소방대에서는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봉산동 일원 20여가구를 방문하여 '화목보일러 안전지킴이' 활동 및 원주여성의용소방대에서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내 30여가구를 방문하여 전기화재를 예방하는 콘센트 부착형 자동소화패치 100매를 배부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강원도의용소방대에서는 화재예방활동 4,861회, 코로나 지원활동 6,049회 등 2만여회의 봉사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또한 전국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심폐소생술 분야 전국 3위에 입상 하는 등 강원도의 명예를 전국으로 고양하기도 하였다.

윤상기 강원도소방본부장은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수호를 위하여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순석 강원도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128년의 전통이 빛나는 도내 7천여명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드높이는 날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안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